

# 유럽 팬들, 한국 핸드볼과 사랑에 빠졌다



한국팀이 16년 만에 세계여자청소년 핸드볼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헝가리전에서 슛 하는 임서영.

/연합뉴스

한국 여자 청소년 핸드볼 대표팀 세계 선수권대회 4강까지 7연승 유럽의 강호들 차례로 꺾고 '돌풍' 신장 168cm에 평균 득점 31.7골 각국 선수들도 한국 열렬히 응원

한국 18세 이하 여자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이 '핸드볼의 본고장' 유럽을 강타하고 있다.

국제핸드볼연맹(IHF)은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마케도니아의 그대 : 다른 나라 팬들도 한국 핸드볼과 사랑에 빠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김진순(인천비즈니스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청소년 핸드볼 대표팀은 현재 북마케도니아 스키페에서 열리고 있는 제9회 세계여자 청소년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출전 중이다.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부터 4강까지 7연승을 내달렸는데 모두 유럽의 강호들을 물리세우며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이 됐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 등 강팀들을 줄줄이 연파했다.

IHF 홈페이지 기사에 따르면 "일본 팬들은 물론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독일 선수들도 한국과 헝가리의 준결승에서 한국을 열렬히 응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르웨이 대표팀이 한국을 가장 열심히 응원했는데 경기가 끝난 뒤 한국 대표팀 버스에게까지 찾아와 사진을 함께 찍

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김진순 감독은 IHF와 인터뷰에서 "우리 팀이 유럽 스타일과 다른 핸드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주시는 것 같다"며 "많은 응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IHF는 이번 대회 한국 핸드볼에 대해 "대회 시작 전에는 '아웃사이드'로 평가됐다"며 "그러나 빠른 스피드와 많은 패스를 앞세운 조직력이 대단한 팀"이라고 칭찬했다.

평균 신장 168cm로 작은 편인 한국은 평균 득점 31.7골, 슈팅 성공률 63.6% 등을 기록하며 각종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가 8강에서 만난 스웨덴의 평균 신장은 175.6cm였다.

또 체력의 불리함에도 7경기에서 2분간 퇴장이 10번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다는 평이다.

IHF가 소셜 미디어에 올려놓은 한국과 헝가리의 준결승 영상에는 외국 팬들이 '헝가리가 이번 대회 최강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게 지다니'라거나 '한국은 조직력으로 승리했다'는 칭찬의 글들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

한국은 올해로 9회째인 이 대회 통산 4강 이상의 성적을 낸 유일한 비유럽 국가이기도 하다.

1회인 2006년 준우승, 최근 두 차례 대회인 2016년과 2018년에는 3위에 올랐다.

김진순 감독은 "우리가 우승한다면 한국 핸드볼이 체력의 불리함을 딛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덴마크는 이번 대회 참가가 가운데 공수 조직력이 가장 탄탄한 팀이라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황선우, 접영 100m 한국 기록 경신 도전

###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참가

'수영 천재' 황선우(19·사진)가 주 종목이 아닌 접영 100m의 한국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황선우는 12일부터 17일까지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 참가한다.

지난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47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은메달을 딴 황선우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지난 달 24일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다시 담금질해왔다.

부다페스트에서 황선우가 딴 은메달은 롱코스(50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수확한 메달이었다.

자유형 100m와 200m가 주 종목인 황선우는 이번 대통령배 대회에서 개인종목은 자유형 50m와 접영 100m에 참가 신청을 했다.

"자유형 50m는 단위 스피드를 높이는 훈련을 위한 것이고, 접영 100m는 지난해에 0.03초 차로 한국 기록을 못 갠 아쉬움이 있어서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 황선우의 설명이다.

황선우는 올해 4월 열린 제주하라배 전국수영대회 접영 100m에서 52초36의 기록으로 남자 일반부 1위를 차지했다.

자유형을 주 종목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황선우는 접영과 배영 종목도 병행했다.

서울체중에 재학 중이던 2018년 8월 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는 접영 50m에서 25초12의 당시 중등부 대회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선우가 대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서 접영 종목에 출전한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였다.

그런데도 황선우는 양재훈(강원도청)이 2020년 11월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52초33)에 불과 0.03초 뒤진 레이스로 수영 천재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황선우로서는 한국 기록 경신에 충분히 욕심을 내 볼 만한 상황이다.

황선우는 이미 한국 기록을 7개나 가지고 있다. 개인종목에서는 자유형 100m(47초56, 아시아 기록)와 200m(1분44초47)는 물론 주 종목도 아닌 개인혼영 200m(1분58초04)에서도 한국 기록을 보유 중이다.

황선우는 단체전인 계영 400m(3분15초68)와 800m(7분06초93), 혼계영 400m(3분35초26), 혼성 계영 400m(3분29초35)에서도 현재의 한국 기록을 합작했다.

황선우의 자유형 50m 성적도 눈여겨볼 만하다. 황선우의 이 종목 최고 기록은 지난해 10월 전국체육대회 남자 고등부에서 1위를 차지할 때 작성한 22초23이다. 역시 양재훈이 가진 한국 기록(22초16)과는 0.07초 차다.

/연합뉴스

## 광주FC 산드로·김현훈·정호연 K리그2 31라운드 베스트 11

광주FC의 3연승을 합작한 산드로, 김현훈, 정호연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31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산드로(FW), 김현훈(DF), 정호연(MF) 등 3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지난 7일 아순신종합운동장에서 충남아산을 상대로 원정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산드로가 전반 후반 시간에 이오템의 크로스를 받아 왼발로 K리그 데뷔골을 장식했고, 김현훈은 충남아산의 공세를 봉쇄하면서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다. '무키' 정호연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수에서 역할을 하면서 세 번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이날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마이키의 골을 더해 2-0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3연승과 함께 승점 61점을 채우면서, '승점 60' 고지에 선착했다.

31라운드 MVP는 FC안양의 아코스티가 됐다. 아코스티는 8일 경남FC와의 원정경기에서 경



산드로(왼쪽부터), 김현훈, 정호연.

기 종료 직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안양은 김동진의 선제골과 상대의 자책골로 2-0 리드를 잡았지만, 티아고와 김영찬에게 연달아 실점하면서 2-2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아코스티의 극장골로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이 경기는 31라운드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대전하나시티즌은 베스트팀이 됐다. 대전은 부산아이파크와 홈 경기에서 카이저, 김인균, 공민현이 연속골로 3-0 완승을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최형우 "뜨거운 가을을 준비하자"

### 위기의 KIA, 최고참 선수 어깨 무거워 "하나로 뭉치면 포스트 시즌 갈 수 있어"

위기의 KIA 타이거즈, '최고참' 최형우의 어깨가 무겁다.

다.

8월 시작과 함께 KIA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KIA는 올 시즌 9전 전승을 거뒀던 한화이글스, 6승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두산을 상대로 6연전을 갖고 8월을 열었다.

결과는 2승 4패.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좋지 못했다.

지난 7일 두산과의 시즌 12차전에서 KIA는 연장 10회말 2사 2루에서 나온 최형우의 끝내기 안타로 5-4 승리를 거뒀다.

10회말 순간만 보면 짜릿한 끝내기지만 경기가 끝난 뒤 '주인공' 최형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수훈 선수 인터뷰에 나온 최형우의 소감도 "좋은 것보다는 아쉬운 게 크다"였다.

4-0에서 9회초를 맞았던 만큼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불펜에서 점수가 새어나갔다. 6일 경기에서는 4-1로 앞선 8회말 2사에서 마무리 정해영이 조기 투입됐지만 1이닝

6실점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작성하면서 KIA는 4-7 역전패를 당했다.

7일 간신히 승리는 거뒀지만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도 지켜보는 팬들도 진이 빠지는 경기였다.

최형우도 끝내기 순간은 연출했지만 "시리즈 전체로 보면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 최형우도 끝내기 순간은 연출했지만 "시리즈 전체로 보면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형우도 끝내기 순간은 연출했지만 "시리즈 전체로 보면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형우도 끝내기 순간은 연출했지만 "시리즈 전체로 보면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형우도 끝내기 순간은 연출했지만 "시리즈 전체로 보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형우도 끝내기 순간은 연출했지만 "시리즈 전체로 보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어렵다"고 토로했다.

(7회말)로 타율 0.227, 35타점에 그쳤다. 하지만 10일 경기 전까지 후반기 13경기에서는 50타수 17안타(1홈런), 0.340의 타율과 함께 10타점을 올리고 있다.

최형우는 "요즘 내 타격 스타일이 돌아온 것 같다. 4. 5월처럼 말도 안 되는 배팅 감각이 아니라 안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스윙하면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깊게 생각했던 것 같다"며 "매 게임 두 번 이상 나가고 싶다. (야구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 출루만 안타든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형우는 올 시즌 후반들에게 임버릇처럼 '포스트 시즌'을 이야기하고 있다. 후반들도 '최고참' 최형우와 함께 뜨거운 가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으로 높은 곳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을 놓치면서 KIA는 5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형우는 '하루'로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최형우는 "(포스트시즌 꿈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많다. 많은데 필요한 뭔가를 얻으려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이걸로 부족한 것 채워가면서 우리끼리 잘하면 포스트 시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형우는 "포스트시즌 꿈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많다. 많은데 필요한 뭔가를 얻으려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이걸로 부족한 것 채워가면서 우리끼리 잘하면 포스트 시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형우는 "포스트시즌 꿈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많다. 많은데 필요한 뭔가를 얻으려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이걸로 부족한 것 채워가면서 우리끼리 잘하면 포스트 시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